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

- 넬슨-앳킨스 미술관에 적용된 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even Holl's Phenomenological Approaches in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of Nelson-Atkins Art Museum -

Author

김준성 Kim, Jun-Sung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정태용 Chung, Tae-Yong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es in Holl's architecture centered on his Nelson-Atkins Art Museum.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concrete and practical architectural contents based on his recent works rather than existing studies about philosophical point of views to his architecture. Because Holl has had turning point from theoretical research to practical application and development stag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ll's phenomenological approaches that were different from his early works. Nelson-Atkins art museum shows effect of luminosity as well as inflow of light in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s of light and space. Holl gave new addition building that he designed contrasts of massing, transparency of material, colors to enhance existence of new building through phenomenological experiences. Narrow and long circulation and various focal points provide multi-view points and overlapped spaces in body experiences As a result, Holl shows shifts from theoretical application to architectural utilization. Nelson-Atkins art museum is important in that this project is one of stating points about this shift.

Keywords

현상학적 건축, 넬슨-앳킨스 미술관

Phenomenological Architecture, Nelson-Atkins Art Museum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후기 구조주의 철학의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현대 건축의 주요 흐름 형성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 건축에는 건축의 감각과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러한 성향을 대표하는 스티븐 홀은 다른 건축가들과 달리 현상학 이론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그 동안 홀 건축에 대한 연구는 디자인만큼이나 현상학 이론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홀이 주로 언급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스티븐 홀의 건축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간주되어왔다. 그 결과 스티븐 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대부분이다.¹⁾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홀 특유의 건축적 사고와 건축

특성에 배경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홀이 이를 어떻게 이용하여 건축화 시켰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철학의 포괄적이고 개념적 내용과 일대일로 대응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론적이고 계획 위주의 작업을 했던 초기에 비하여, 현재 성숙기를 맞고 있는 홀에게 있어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여러 단계의 해석과 실험을 거쳐 건축화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 1) 스티븐 홀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로서는, 장현주·박찬일, 스티븐 홀의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빛의 표현방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3.02, 김영희, 스티븐 홀의 스트레토 하우스에서 베르그송의 지속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02, 안우진·손광호·고성룡, 스티븐 홀 작품에 나타난 현상학적 빛과 물의 공간작용,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1.06, 김명옥, 스티븐 홀의 감성적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03, 홍덕기·구영민,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시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5, 김광배, 현상학이 건축이론에 미친 영향과 현상학적 설계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12, 김성호, 현대 건축가의 신체 담론에 나타난 공간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4, 김성호, 현대건축과 수용미학, 스페이스타임, 2003, 박영옥,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5 등을 들 수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taeyong@konkuk.ac.kr

** 이 논문은 2012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서 현재의 스티븐 홀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그가 발전시켜온 현상학적 건축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스티븐 홀 건축에 대한 철학 중심의 현상학적 건축 논의’를 지양하고 대신 최근 작품을 중심으로 그가 전개시켜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상학적 건축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즉 ‘발광성(luminosity)’과 새로운 빛 유입 방법을 통한 체험, 움직임임을 고려한 다양한 다시점 구성, 재료, 색채의 대조를 통한 체험의 극대화 등 이전과 달라진 현상학적 건축 접근 방식을 넬슨-앳킨스 미술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넬슨-앳킨스 미술관을 중심으로 현상학적 건축 및 자신의 작업에 대한 스티븐 홀의 저작물과 구체적인 건축 작업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다. 단 연구의 편의와 깊이를 고려하여 내용 변화의 추적에 유리한 박물관 건축으로 한정한다. 이는 빛, 동선 등 건축의 현상학적 측면과 가장 관계가 깊은 시설물의 종류가 바로 박물관이며 스티븐 홀의 작품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스티븐 홀의 건축적 현상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이들을 검토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현상학적 건축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작업에 드러나고 있음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건축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스티븐 홀의 이론과 논리가 어떻게 건축화 되었는지를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행함으로써 실질적 작업을 수행하는 건축가에게 있어서 이론의 역할 그리고 현상학적 접근방식이 갖는 장점과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2.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 전개

2.1. 홀의 주요 저서와 현상학적 건축 논의

(1) 도입 및 정립단계

스티븐 홀은 ‘정박(Anchoring, 1989)’에서 시간과 문화, 프로그램, 대지로부터 형성된 ‘제한된 개념/내에서 재료와 빛 등을 통해서 현상적 체험의 공간을 조직할 것을 주장한다.²⁾ 1975년부터 1989년까지의 작업을 담은 이 책은 비록 현상학적 내용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³⁾, 현상학적 건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최초로 소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팔라스마 및 페레즈-고메즈와의 공저인 ‘Questions of Perception(1994)’서 홀은 건축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장소는 물리적 특성보다 ‘그물처럼 얽힌 경험: 사물과 장소의 융합체’로 간주된다. 건축의 경험은 시간의 통로인 빛, 그림자와 투명성, 색채 현상, 질감, 물성 및 디테일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홀은 ‘건축만이 모든 지각의 복합체 즉 모든 감각을 동시에 깨우칠 수 있다.’⁴⁾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처음으로 전경, 중경, 원경이 “완전한 지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홀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표현은 주관과 객관의 혼합으로서, 디자인 도출 논리는 ‘내부적이며 주관적인 과정’을 통해 자체의 의문에 대하여 답하는 것이 된다.⁵⁾ 이 책을 기점으로 홀에게 있어 현상학적 철학 개념들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⁶⁾

한편, ‘상호 얽힘(Interwinning, 1996)’에서는 “건축은 장소와 결합하고 상황 즉 대지의 의미를 집결시켜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⁷⁾고 주장하여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현상학자인 메를로-퐁티의 저서 ‘지각의 현상학’에 근거하여 건축 인식의 주체로서 ‘신체’ 개념을 도입⁸⁾하고 감각적, 지각적 체험을 중시했다. 홀은 “우리의 목적은 건축을 사고의 레벨로 끌어올리면서 강력한 현상학적 성격을 갖는 공간을 실현시키는 것”⁹⁾으로 주장하면서, “한 단계에서 ‘아이디어-힘’은 건축을 이끌고, 다른 단계에서 건축의 조직을 위해 구조, 재료적 공간, 색채, 그림자가 서로 얽여진다.”는 건축적 전개방식을 제시한다.

이렇듯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걸친 기간 동안 스티븐 홀은 메를로-퐁티와 베르크송의 철학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유형학에 치중했던 초기 건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

3) 홀이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접한 것은 1984년이다.

4) Steven Hol,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Question of Perception, Juani Pallasmaa and Alberto Gomez, A+U, 1994, p.41

5) Ibid., p.43

6) Steven Holl, Steven Holl: Architecture Spoken,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이원경 역, 미메시스, 2012, p.65

7) Steven Holl, Interwinning, 1989-1995, Princeton Press, 1996, p.9

8) Francesco Garofalo, Steven Holl, Universe, 2003, p.9 “관념의 힘, 현상학적 속성, 대지의 힘이 상호 얽힘을 이루는데서 이 세 가지는 단순히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낮지만 설명되지 않는 신비가 존재한다. 상호 얽힘은 안, 밖에 걸쳐 있는 ‘틈’을 갖는다. 우리의 신체는 건축공간의 실체를 통과해 움직이며, 이와 동시에 그것과 함께 짝을 이룬다. 퐁티는 이것을 ‘세계의 몸(살)’이라고 불렀다.” Steven Holl, Interwinning, 1989-1995, Princeton Press, 1996, p.13

9) Steven Holl, Interwinning, 1989-1995, Princeton Press, 1996, p.16 “현상학은 본질의 연구에 관계한다; 건축은 본질을 실존에 둘러놓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형태, 공간, 빛을 짜서 건축은 특정한 사이트, 프로그램, 건축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현상을 통해 일상 생활의 경험을 고양시킬 수 있다.”

2) Steven Holl, Anchoring, Princeton, 1991, pp.10- 11

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학의 개념과 내용이 새로운 건축을 지향했던 홀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었으나, 홀은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현상학의 세부 내용을 따르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스티븐 홀의 저작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밤의 공간성’도 용어 자체는 메를로-퐁티의 것이지만,¹⁰⁾ 내용상으로는 상이하다. 메를로-퐁티가 주로 밤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통해 ‘지각과 존재’의 관계를 탐구한다면, 홀에게 있어서 밤은 인공 빛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지고 건축가가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건축적 내용으로 변환된다. 이렇듯, 이 시기에 홀은 현상학의 각 개념과 용어를 지속적으로 재정의 하면서 건축적 전개의 동력을 얻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활용단계

2000년대 대표적 저서인 ‘시차 Parallax(2000)’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차’와 같은 새로운 과학적 개념이 유형학과 현상학에 이어 자신의 건축에 새로운 동력으로 도입되었음을 암시한다.¹¹⁾ 이는 홀의 건축적 사고가 현상학의 개념을 넘어 이를 건축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¹²⁾

2006년에 발간된 ‘발광성과 다공성(Luminosity and Porosity)’에서는 진일보한 건축개념을 설명하는데, ‘정박’과 ‘상호 얹힘’과 같이 철학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에서 좀 더 건축적인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홀은 다공성을 “단단하고 독립적인 물체 형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연속된 공간들의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¹³⁾ 홀은 이 개념을 통하여 건축과 도시, 풍경 조성에 있어서 형태, 색, 빛의 효과를 다루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 다른 한편, 공간의 경험은 발광에 의해 통합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밤의 공간성’, ‘빛의 문제’, ‘심리적 공간’의 내용이 포함되며 발광과 관련, 빛의 취급과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홀은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건물을 자신의 개념에 따라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건축화된 내용들은 홀 자신이 수행한 다양한 건축 유형과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정리된 사항들은 다시 이후의 작업에 활용된다. 이는 이전의 실험 및 시도가 이후 작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축 실무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그 결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한 현상학

적 건축의 발전적 적용도 가능해졌다.

<표 1> 스티븐 홀의 주요 저작물과 현상학적 건축의 내용

저서명	연도	주요 내용
Anchoring	1989	건축의 대지로의 정박을 통한 의미 생성, 현상학 적용
Questions of Perception	1994	현상학적 건축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제시
Interwinning	1996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근거한 감각적, 지각적 체험 중시
Parallax	2000	유형학 및 현상학 이외의 과학 개념 도입
Luminosity Porosity	2006	현상학적 건축과 관련된 독자적 건축 개념의 도입 건축에서 도시문제까지 확대

2.2. 분석틀의 내용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사고는 자신이 저술한 여러 권의 책을 통하여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다. 본 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특정 건물에 나타난 그의 현상학적 건축 접근 방식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자 하며,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한다.

우선 건물의 종류와 구체적 프로그램에 의해 현상학적 접근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술관, 박물관 건축에 국한 시키는데, 이는 박물관 건축이 기본적으로 동선, 빛 등 건축의 지각과 관련이 있어 현상학적 건축의 특성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크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실 홀의 현상학적 접근은 키아즈마 미술관에서 시도되었고 이후 넬슨-앳킨스 미술관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이렇듯 홀의 박물관 건축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므로 전후 작업과 비교하여 그 내용 변화를 추적하는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겠다. 아울러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현상학적 접근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도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

<표 2> 스티븐 홀의 주요 박물관(완공작) 건축 프로젝트 및 내용

년도	프로젝트 명	건축 특성
1992	Kai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초기 대표작, 현상학적 특성 다수 포함
1998		additive 선형, 다시점 운동감, 연못
1993	Cranbrook Institute of Science	기존 건물 증축, 연속 선형구성, 상호얹힘의 공간, 재료, 다시점, 연못
1994	Knut Hamsun Center Hamarøy, Norway	표면질감, 재료물성, 내부질감, 빛의 유입과 효과
1999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전환기적 속성, 증축, 다시점, 신체 체험 강조, 표면 물성, 야간발광체
2001	Losium Visitor Center	다양한 외피면 구성, 부정형의 개구부, 와인 저장고 개념 변형
2003		일방향 동선, 선형구성, 콘크리트와 반투명 유리, 조각적 형태
2003	Nanjing Sifang Art Museum	
2005	Herni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조소적 형태, 표면 질감, 정형 전시, 부정형 지원공간, 연속순로식 동선, 변화감있는 천정면, 야간 발광체
2009		
2005	Cite de L'Océan et du Surf, France	조소적 구성, 바닥 질감, 표면재료, 백색 모노톤, 반투명 유리 발광체
2011		
2008	Daeyang Gallery and House	현상학적 렌즈로서의 물, 음악악보 유추, 다시점 확보, 독립 매스의 중첩
2012		

홀이 밝혔듯이 신체는 건축경험의 중심이다. 본 분석틀은 이 점을 중시하여 건축의 경험 발생을 신체의 감각과 신체의 운동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신체

10)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 p.428
 11) Steven Holl, Parallax,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p.9 “이 책은 건축에서의 정신, 과학에서의 발견, 그리고 서로간의 관계를 탐험하려는 노력과 지각을 확인하는 것이다.”
 12) Francesco Garofalo, Steven Holl, Universe, 2003, p.9 “나는 건축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외부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진정한 실험이었다.” Steven Holl, Steven Holl: Architecture Spoken,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이원경 역, 미메시스, 2012, p.65
 13) Steven Holl, Op. Cit., 2012, p.167

감각은 경험의 가장 주요소인 빛과 기타 촉각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 신체의 움직임은 공간의 방향과 깊이의 경험에 관계하는 다시점과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체험으로 대별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홀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다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박물관 건축에 적용된 내용으로 한정하며, 시각에서는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빛의 유입과 효과 및 의미를 다루고, 기타 감각에서는 재료의 마감과 물의 다양한 사용 등 내외부 재료의 물성과 물의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신체의 움직임 관련하여서는 전시 동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점의 형성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며, 움직임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체험 및 박물관에서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를 만들 수 있다. 물론 현상학적 체험은 모든 감각 기관을 통해 통합되어 지각되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분류 및 그 관련사항의 기술은 특정 대상물의 분석 및 유관 건물들과의 상호 비교에 있어서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것이다.

<표 3> 스티븐 홀 박물관 건축의 현상학적 특성을 위한 분석틀¹⁴⁾

체험	주요관련 사항	박물관 관련 사항
신체 감각	빛의 유입방법, 효과, 의미, 빛의 현상적 변화와 결합, 색채, 빛과 그림자, 밤의 공간성	전시용 자연광 사용 로비 등 공간의 빛 사용 빛의 효과와 의미
	디테일 촉각적 영역, 음향, 현상적 렌즈로서의 물, 이미지에서 촉각 영역으로, 음영의 속도(빛의 압력)	내외부 건축재료 물성, 질감, 물의 이용, 물의 현상학적 효과
신체 움직임	원근법적 공간: 불안정한 지각, 다시점 제공, 공간의 방향과 깊이에 대한 현상학적 의미	다시점의 구성의 공간적 효과 전시동선 다양화와 공간체험
	자율에서 상호작용으로, 신체 이동에 따른 시점의 변이, 연속적인 우회동선, 시간의 지속과 지각	전시동선과 시점 변화, 전시동선의 구성과 특성

3. 넬슨-앳킨스 미술관의 현상학적 특성

3.1. 건물 배경 및 개요

(1) 설립배경과 프로그램

넬슨-앳킨스 미술관의 본관은 캔사스 시 리버티 메몰리얼 접근로와 캔사스 주지사 저택인 세다 크레스트(Cedar Crest) 등을 설계하였던 와이트 사(Wight and Wight)가 맡았다. 넬슨-앳킨스 미술관은 고전적인 보자르 건축 양식으로서 클리블랜드 미술관을 참조하여 설계되었는데, 1930년 7월 공사가 시작되었고 1933년 12월 11일 개관하였다.<그림 1> 1999년에는 낙후된 시설과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증축 건물(Bloch Building¹⁵⁾)

설계 경기가 국제 현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 넬슨-앳킨스 미술관 본관

홀의 당선안은 기존 건물의 동측 지하에 주요 공간을 두고 렌즈라 부르는 5개의 유리 타워를 상부에 세우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 건물의 대대적 리노베이션, 조각 공원의 복원, 상설 전시실의 재설치, 기존의 백과사전적 컬렉션에서 33,500점을 선별하여 전시하는 등, 전체 시설의 극적인 전환을 의도한 것이다. 증축 건물은 현대 미술, 아프리카 미술, 사진, 카페 및 특별 전시실과 참고 도서실 등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인 이사무 노구치의 조각을 설치한 정원, 입구 광장, 월터 디 마리아와 협력 작업인 반사 연못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외부 공간을 창조해낸다. 증축 건물을 통해 미술관의 전시 면적이 70% 이상 증가 되었고, 크고 빛이 충만한 갤러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증축 건물은 2007년 6월 9일에 개관하였다.¹⁶⁾

(2) 계획의도와 개념

스티븐 홀은 1933년의 기존 미술관 건물을 ‘돌(stone)’로 증축 건물을 ‘깃털(feather)’로 간주하는 독특한 설계 개념을 제시하였다. 홀에 따르면, 돌은 보행자의 방향을 지시하지만 깃털은 길을 열어준다. 돌은 묶여 있지만 깃털은 자유롭다. 돌은 풍경의 내면을 바라보지만 깃털은 풍경의 외면을 바라본다. 밀폐와 개방, 외래와 토착, 이 모든 면들이 오래된 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것의 차별성이며, 그것은 오래된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새로운 것에서 경험하게 해준다.¹⁷⁾ 홀은 일단 개념과 전략이 설정되면 내부 공간에서 외부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는데, 먼저 공간을 구상하고, 빛과 전망, 움직임의 방향이 모두 함축된 완벽한 연속성을 계획했다. 그 결과, 현상설계 당선안은 단일의 거대한 매스에 반대하는 5개의 상호 연결되는 구조물로 구성되어있다. 하나의 매스를 덧붙이기보다 상호 보완되는 대조로서 새로운 요소들을 기대했던 것이다. 좁고 길게 형성된 증축 건물의 대부분 공간은 기존 미술관의 동측 대지를 따라 지하에 위치한다. 지하에서 솟아오른 5개의 독립적인 유리 구조물

따은 것이다.

16) 증축 비용은 대략 9,500만불(1000억원)이고, 이것은 2005년 가을 개관한 학생과 교육자의 수업, 공방 및 자원의 중심인 포트 러닝 센터를 포함하는 박물관 리노베이션 전체 비용 2억불(2,200억원)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다.

17) Steven Holl, Steven Holl: Architecture Spoken,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이원경 역, 미메시스, 2012, p.344

14) 표의 주요 관련 사항은 Questions of Perception, 1994, pp.40-116의 내용을 ‘감각과 움직임’의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며, 박물관 관련 사항은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15) 이것은 H&R Block의 공동 창업자의 Henry W. Bloch의 이름을

즉 ‘렌즈’¹⁸⁾는 건축과 주변 환경 간 다양한 상호작용 즉, 새로운 공간과 시야각을 만들어낸다. 상부 조각 정원의 구불대는 통로는 새로운 갤러리들의 연속적인 레벨을 통한 개방된 흐름을 만들어낸다. 조경을 통한 움직임과 빛 개구부 간의 얹힘으로부터 새로운 건축체험이 형성된다.<그림 2>

<그림 2> ‘렌즈’와 외부 공간으로 이루어진 매스 및 공간 구성

지상에 형성된 유리 렌즈들은 하부 갤러리에 다양한 빛의 성질을 가져온다. 외부적으로 이들 렌즈는 조각품 처럼 대지에서 솟아나와 조경을 만들어내며, 방문객들이 내외부에 모두에서 건축 경험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 결과 기존의 조각 정원을 포함하여 전체의 박물관 대지를 관람객의 경험의 영역으로 전환시킨다.¹⁹⁾ 이때 동선과 전시가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의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관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넬슨-앳킨스 박물관 증축은 건축과 조경을 융합하여 공간과 시간을 통한 개인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는 경험적 건축을 만들어낸다.

3.2. 감각과 관련한 현상학적 건축특성

(1) 빛의 유입과 발산을 통한 체험 효과

미술관에서 자연광의 효과적인 이용은 절대적이다. 홀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이 건물은 자연광에 대한 심리적 요구와 수평으로 뻗어있는 260m 길이의 갤러리에 자연광으로 어떻게 특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주요 문제였다.²⁰⁾ 홀은 증축건물에서 빛의 유입장치를 체계화시켜 효율을 증대시키고 공간적 효과도 꾀하였다. ‘Y’ 형태의 유입장치는 북측 빛은 항상 받아들이고, 남측 빛은 형태를 조절하여 여름철 빛은 차단하고 겨울철 빛은 반사를 통해 갤러리에 유입되도록 하여 마치 한옥의 처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즉, 내부에서는 조각물과 같은 오브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는 이를 감싸는 유리 상자(렌즈)를 만들어 냄으로써 또 다른 조형

물을 만들어 냈다.<그림 2>, <그림 3>

<그림 3> ‘빛’ 유입장치의 원리와 조형적 형태

건축과 조경, 내부와 외부, 투명과 불투명, 고요함과 에너지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렌즈들은 여러 겹으로 만들어진 유리를 통해 빛을 모으고 확산시키며 굴절시켜 빛을 얼음 블록과 같이 물질화한다. 낮 동안 렌즈들은 갤러리에 다양한 성질의 빛을 유입시키지만, 밤에는 조각 공원이 렌즈의 내부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밝게 빛난다.²¹⁾<그림 4>

<그림 4> 넬슨-앳킨스 미술관에 사용된 빛의 발산과 유입 효과

(2) 재료의 대비와 매개체로서의 물

스티븐 홀은 넬슨-앳킨스 미술관 증축에서 상반되는 재질을 사용하여 의도적인 대비에 의한 체험을 제공한다. 지상으로 돌출한 렌즈 즉 유리 상자들은 빛을 산란시키는 오카루스 단열재가 삽입되어 태양열의 흡수와 유지에 유리하다.²²⁾ 자체 자립이 가능하여 수직 멀리온이 필요 없는 구조용 유리 구조물인 렌즈는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재질감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존 미술관의 무겁고, 단단하며, 불투명한 석재에 대비되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투명한 감각을 제공한다. 또한 잔디의 구름에 대조되는 유리 매스를 통해 인공과 자연의 대조감 역시 나타낸다. 이러한 대조감은 내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빛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조물은 콘크리트로써 이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화 대비되어 또 다른 재질감을 보여준다.<그림 5>

스티븐 홀은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물이 갖는 현상학적 효과에 주목해왔는데, 넬슨-앳킨스 미술관에서는 연못의 형태로 물을 사용한다. 박물관의 북측에는 반사 연못이 북측 정면에 위치한 니콜라스 광장(J.C. Nichols Plaza)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연못 하부에 위치

18) “내가 이 건물들을 렌즈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것들이 밑으로 빛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람객이 경관을 돌아다니는 동안 그것들이 위에 얹힌 조각 정원들을 형성함으로써 렌즈와 관련된 빛과 움직임의 시차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Steven Holl, Steven Holl: Architecture Spoken,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이원경 역, 미메시스, 2012, p.346

19) Steven Holl, Luminosity / Porosity, Toto, 2006, p.128

20) Steven Holl, Op. Cit., 2012, p.346

21) Francesco Garofalo, Steven Holl, Universe, 2003, p.196

22) 오카루스 단열재는 태양열 손실률을 18%로 줄여 에너지 보존에 뛰어난 효과를 갖는다.

한 주차장에 자연광을 제공하기 위해서 34개의 눈(occuli) 모양의 천창을 갖고 있다. 지하 주차장 상부에 만들어진 이 연못은 물에 의한 반사, 물의 움직임 등 현상학적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간의 연계를 이 연못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석재와 유리의 상반된 재료를 물이라는 재질로 매개하며 이는 서로의 재질과 형태를 연못에 투영시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두 건물의 앞마당을 이룬 연못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융합된 예술작품²³⁾이 된다.<그림 5> 우측사진

<그림 5> 넬슨-앳킨스 미술관 재질의 대조, 연못의 구성

3.3. 움직임과 관련한 현상학적 건축특성

(1) 선형 동선의 수평, 수직적 변화에 의한 공간 체험

스티븐 홀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빛과 공간에 대한 체험을 극대화시켰는데 넬슨-앳킨스 미술관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련의 연속된 공간 속을 움직이면서 몸의 위치가 바뀌고 시각이 달라지는데, 이렇듯 공간 속을 움직이는 몸이 홀이 의도하는 건축의 핵심 척도이다.²⁴⁾

넬슨-앳킨스 미술관의 지하 내부 공간은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는데, 260m의 길이로서 이전의 어떠한 미술관보다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동선에 따른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홀은 모든 이동과 이에 따른 변화, 그리고 내려가는 지점에서의 전망을 디자인에 반영하였다.²⁵⁾ 홀은 몸의 방향을 바꾸면 그 움직임에 따라 공간이 일대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이동시켜 공간을 체험시키는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증축 건물의 밝고 투명한 유리 로비는 관람자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공간으로서, 에스컬레이터는 연속적 레벨로 구성된 갤러리 동선을 활성화한다. 또한 로비에

서 기존 건물, 외부 공간, 내부 갤러리 복도 등으로 분기되고 교차하는 축들이 다양한 공간감을 만들어낸다.²⁶⁾ 연속된 갤러리 공간들은 레벨 차이와 갤러리 형상 및 전시 벽에 의한 공간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4개의 유리 상자가 만들어내는 공간상의 변화와 빛의 유입을 통하여 극적인 공간 체험을 활성화시킨다. 이렇듯 공간 속의 움직임과 빛의 작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건물이 주는 느낌과 개념의 핵심요소로 작용한다.²⁷⁾

<그림 6> 넬슨-앳킨스 미술관 증축동의 내부 동선

(2) 다시점의 변화를 통한 공간 체험

다양한 시점의 형성은 극적인 공간 체험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홀의 건축 특히 미술관 건축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넬슨-앳킨스 미술관 증축에서는 수평과 수직의 2가지 측면에서 다시점 형성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행한 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벽의 각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시점에 대해 직각으로 놓이는 벽들도 단일 시점의 형성을 방해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수직적으로도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레벨을 통하여 시점은 아래로 향하게 되고, 동선이 진행됨에 따라 단층에서 다층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수직적으로 여러 개의 초점이 만들어진다. 그 결과 다양한 시점과 더불어 전망이 중첩되어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낸다.²⁸⁾ 즉, 한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쳐다 볼 때, 동선과 전시는 통합된 연결체로서 다양한 시점 변화를 제공한다.<그림 7>

이러한 다양한 시점은 내부 뿐 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발생하는데, 증축 건물의 모든 갤러리들은 조각 공원의 조경으로 우연적 조망을 갖는 연속적인 유동적 레벨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크기와 위치를 갖는 유리 상자와 이들이 놓인 잔디 구릉은 조각 공원 상부 전후의

<그림 7> 넬슨-앳킨스 미술관 엔트런스 홀 및 복도의 다시점 형성

23) 연못의 내부는 윌터 디 마리야의 작품인 '하나의 해와 34개의 달'을 담고 있다. 각각의 요소는 지하 주차장을 위한 천창으로 사용된다.

24) "음악이고 멜로디이며, 그것이 정수이다. 컨셉을 구상하고 그것으로 개념도를 그리는 것, 그것이 디자인을 가능케하는 씨앗이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경험을 통해 평가되며, 경험적 특성이 성공을 좌우한다." Steven Holl, Steven Op. Cit., 2012, p.347

25) Ibid. p.347. "나는 하나의 층이 또 다른 층으로 내려갈 때 절대로 1-1.5m 이상 낮추지 않았다. 그래서 저 공간보다 조금 낮은 이 공간에서 서 있으면 저 공간의 바닥 너머가 보인다. 그것이 관람객을 이끌고 돌아다니게 한다. 나는 공간의 중첩이 깨지지 않도록 바닥을 너무 멀리 이동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이 또 다른 공간과 겹쳐지는 연속성이 유지된다."

26) Francesco Garofalo, Steven Holl, Universe, 2003, p.196

27) Steven Holl, Steven Holl: Architecture Spoken,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이원경 역, 미메시스, 2012, p.348

28) "중첩된 퍼스펙티브들을 통해 가로지를 때, 새로운 증축건물의 빛을 모으는 렌즈들 간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랜드스케이프를 통한 신체의 움직임은 우리 자신과 건축 간의 요소적 연결이다."

‘배회’ 통로와 결합되어 개방된 흐름²⁹⁾과 더불어 다양한 시각 체험을 이루어낸다.

3.4. 넬슨-앳킨스 미술관 건축의 현상학적 의의

(1) 빛의 발광성(luminosity)의 강조

홀은 건축의 지각과 형이상학적 성질이 솔리드와 보이드, 불투명성, 투명성, 반투명성에 의해 만들어진 빛과 그림자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한다. 눈이 보는 것과 느끼는 감각은 빛과 그림자의 조건에 의해 형성³⁰⁾되므로 여전히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광의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홀의 건축에서, 다양한 개구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벽의 물성을 변화시키고 관람자의 시선을 제어하면서 공간의 깊이를 더해주고 자유로운 동선을 통해 서로 다른 장면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갖는다. 왜냐하면, “공간은 변화의 속성을 지닌 유동적인 것이며, 시간과 빛 등 비물질적인 속성들은 공간에 본질적인 생명을 부여”³¹⁾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90년대 초 홀의 작업이 현상학적 건축에 대한 디자인 원리, 기준의 설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작업은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적용과 활용을 거쳐 나름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발광과 다공성(luminosity and porosity)’이다.

<그림 8> 발광성 강조의 사례, 좌로부터: Kiasma(1992-98)
Nelson-Atkins(1999-2007), cité de l’océan et du surf Museum(2005-11)

넬슨-앳킨스 미술관 증축을 기점으로 ‘발광성’에 대한 강조가 확대되는데, 스티븐 홀은 “공간은 빛 없이는 잊혀진다. 건물은 빛에 의해 지휘되는 지각의 침묵을 통해 말한다. 발광은 다공성이 도시 경험의 통합이듯이 공간 경험의 통합”³²⁾이라고 주장한다. 키아즈마 미술관이나 크랜브룩 과학관과 같은 이전 작업에서 창이나 건물의 한 면 정도로 나타났던 발광성은 넬슨-앳킨스 미술관 이후 독립적 매스의 발광으로 강조된다.

(2) 물 사용 방법의 변화

홀이 물이 갖는 현상학적 특성을 중시하여 반사, 공간적 역전, 굴절, 광선의 변화의 힘을 갖는 ‘현상적 렌즈’³³⁾로 강조한 이후, 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홀의 건축과 불

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키아즈마 미술관에서 보여지듯 배치 개념상 주요 요소이나 실질적으로는 물이 반사 중심의 단순 연못 역할을 한 것에 반하여, 넬슨 앳킨스 미술관에서 물은 구관과 직교하여 구성된 신관 엔트런스 건물사이에 형성된 ‘L’자 공간에 직사각형의 형태의 반사 못인 동시에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을 연결하고 전체 배치 상에서 결절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허닝 미술관의 외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개념상 주요 축인 동시에 가시적으로도 명확성을 드러낸다.<그림 9>

<그림 9> 키아즈마 미술관과 넬슨-앳킨스 미술관의 연못

(3) 움직임 구성의 변화

넬슨-앳킨스 미술관의 증축은 부정형의 선형 구성 때문에 방들의 형태와 크기와 조금씩 다르고, 그 덕분에 자연광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들어온다. 이로 인해 관람객은 연속된 공간들을 비대칭적으로 이동하게 된다.³⁴⁾ 키아즈마 미술관이나 벨뷰 미술관의, 끊임없이 연속되고 변화하는 시각들의 전개와 계속이 여기서도 유지되고 있지만, 넬슨-앳킨스에서는 좀 더 복잡적이고 다층적 측면으로 발전한다. 즉 이전 미술관에서 일방향의 움직임이 유도되었던 것에서 다양한 레벨의 변화와 공간 변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모한다. 물론 규모와 프로그램의 차이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방향과 움직임의 선택이 제한적이었던 전자보다는 다양한 움직임과 선택이 가능해졌고, 빛과 결합하여 다양한 신체 경험을 유발시키는데 이는 허닝 미술관에서도 동일하다.

(4) 다시점 구성방법의 변화

키아즈마 미술관과 벨뷰 미술관의 경우 소실점이 일치하지 않아 다시점이 형성된 것은 맞지만, 시각은 곡선의 벽면, 천정면, 경사로 등을 통하여 특정한 영역으로 수렴한다. 반면 넬슨-앳킨스 미술관에서는 직선형의 계단, 바닥면, 천정 면을 통하여 시점이 수렴되는 영역이 분명하게 다수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관람객의 시각적 경험은 좀 더 입체화되고 복합적인 것으로 변모한다. 이후 작업인 허닝 미술관에서는 동일 평면에 다양한 방향성을 갖는 전시관을 수평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다시점을 만들었다.

29) Francesco Garofalo, Op. Cit., 2003, p.204

30) Steven Hol,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Question of Perception, Juani Pallasmaa and Alberto Gomez, A+U, 1994, p.63

31) Ibid., p.65

32) Steven Holl, Luminosity / Porosity, Toto, 2006, p.21

33) Steven Hol, Op. Cit., 1994, p.80

34) Steven Holl, Op. Cit., 2012, p.266

<그림 10> 키아즈마, 벨뷰, 넬슨-앳킨스, 허닝 미술관의 다시점 공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홀의 현상학적 건축접근에 있어서 넬슨-앳킨스 미술관은 초기 작업인 키아즈마 미술관의 현상학적 건축 특성을 계승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측면을 보여줄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넬슨-앳킨스 미술관의 현상학적 건축 특성과 의미

내용	키아즈마 미술관	넬슨-앳킨스 미술관
대지 해석	도시 내 맥락 고려 키아즈마(틈새) 개념 대입	기존 조각 정원 하부를 이용한 기존 건물의 존재감 유지 연못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일반적인 미술관 프로그램 빛과 움직임을 통한 체험 중시	박물관 성격에 대한 체험위주의 현상학적 해석
신체 감각	다양한 자연광의 유입과 효과 실험 빛이 충만한 로비 및 램프 의도	전시용 자연광 사용 로비 등 공간의 빛 사용 빛의 효과와 의미
	다양한 질감의 재료 사용 매스와 교차하는 요소로 연못 사용	내외부 건축재료 물성, 질감, 물 의 이용
신체 움직임	원근법적 공간의 해체 곡선형 램프를 통한 다시점 형성	다시점의 분산을 통한 시각 경험 의 극대화
	곡선의 램프를 통한 전시동선 점진적, 순차적 움직임에 의한 체험	선형 전시 동선과 바닥 레벨의 변화를 통한 움직임 가속화

4.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넬슨-앳킨스 미술관 증축 건물은 빛의 유입을 건축 구조와 내부 형태 요소로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빛의 드러냄을 매스의 집합으로서 발광의 특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듯 이전과 다른 빛과 공간의 현상학적 체험은 키아즈마 미술관을 비롯한 초기 작업에서 시도된 다양한 현상학적 건축 방법들을 발전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발광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시킨 것으로서 이후 작업에서도 지속된다.

둘째, 넬슨-앳킨스 미술관 증축 건물은, 지상의 거대한 단일 매스에 의한 본관과 지상으로 돌출된 다수 매스에 의한 증축 건물의 대비 구성, 본관의 육중하고 불투명한 석재에 대한 증축건물의 반투명 유리재료의 가벼움과 투명성 등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대조의 건축 체험을 통하여 증축건물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의 결과이다.

셋째, 넬슨-앳킨스 미술관 증축이 보여주는 다시점과 중첩된 공간의 현상학적 건축 특성은 이전의 성격에서 진화된 것으로서 좁고 긴 동선을 조성하여, 단일 목표로

수렴되는 시점 변화를 다층 구성에 의한 움직임의 다변화로 변환시킴으로써 이전에 비해 다시점의 수평적, 수직적 변화를 제공한 것이다.

넷째, 이상의 현상학적 건축 특성 중 일부는 이미 제시되었던 것이지만, 넬슨-앳킨스 미술관에서는 그 특성이 다양화되고 좀 더 구체화되고 있어,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 탐구가 현상학의 개념 적용을 넘어 건축적 활용 및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넬슨-앳킨스 미술관이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 접근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Corrodi, Michelle, Illuminating, Birkhauser, 2008
2. Descottes, Herve, Architectural Light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3. Holl, Steven, The Chapel of St. Ignatiu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4. Holl, Steven, Anchor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5. Holl, Steven, Interwin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6. Holl, Luminosity / Porosity, Toto, 2006
7. Holl, Steven Holl: Architecture Spoken,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이원경 역, 미메시스, 2012
8. Holl, Steven, Parallax,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0
9. Holl, Steven, Pallasmaa, Juhani, Perez-Gomez, Alberto, Questions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William Stout Publishers, 1994
10. Garofalo, Francesco, Steven Holl, Universe, 2003
11. Pallasmaa, Juani, The Eyes of the Skin, Wiley, 2008
12. Rees, J.M., The Sixth Surface, Topo/graphis press, 2007
13. Richard Ingersoll, Steven Holl Architect in a Cabinet of Curiosities, C3, 2002
14. 김성호, 현대건축과 수용미학, 스페이스타임, 2003
15. 김성호, 현대 건축가의 신체 담론에 나타난 공간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4
16. 박영옥,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5
17. 이종관, 공간의 현상학, 풍경 그리고 건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18. 홍덕기·구영민,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시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5
19. <http://www.stevenholl.com/project-detail.php?id=40>

[논문접수 : 2013. 08. 30]

[1차 심사 : 2013. 09. 17]

[게재확정 : 2013. 10. 11]